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 성공 W병원과 영남대병원 간호사 참여

국내 최초로 진행된 '팔 이식' 수술과정에 간호사들이 함께하며 수술 성공에 힘을 보탰다.

역사적인 팔 이식 수술은 지난 2월 2일 W병원(원장·우상현)과 영남대병원(의료원장·김태연)의 의료진에 의해 진행됐다.

산재사고로 왼쪽 팔을 잃은 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로 뇌사관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팔을 기증받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2월 24일 퇴원했으며,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W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전문병원이다. 우상현 W병원장은 국내 최초 팔 이식을 위해 팔 이식 수술팀을 구성하는 등 수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왔다. 영남대병원과 수술업무 협약도 맺었다.

팔 이식은 복합조직이식으로 뼈, 혈관, 신경, 힘줄, 근육, 피부 등 여러 조직을 모두 이식해야 하는 복잡한 수술이다. 1999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70여건이 시도된 고난도 수술이다.

이번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은 영남대병원 수술실에서 진행됐다. 우상현 W병원장과 이준호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등 25명의 의료진과 간호사 8명이 참여했다.

간호사의 경우 수술실 경력 10여년의 베테랑들이 참여해 큰 역할을 해냈다. W병원(간호이사·김길



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W병원 우상현 원장(왼쪽에서 넷째)과 수술간호사들. 수술은 영남대병원 수술실에서 진행됐으며, 사진은 수술 이후 W병원에서 촬영했다.

자)의 간호사 5명과 영남대병원(간호운영실장·유점희)의 간호사 3명이 함께 참여해 협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이식 및 접합수술 등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 발휘하며 수술간호사의 역할과 위상을 잘 보여줬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된다 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적용

뇌졸중, 고위험산모 대상 준중환자실 입원료가 신설 적용된다.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고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를 4월 25일 열고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등을 심의의 결했다.

현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신설됐다.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하고, 간호사당 1.5병상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3만원으로 결정됐다. 주혜진 기자 hjoo@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당신에게 '간호사는 고마워요'

책 캔필드 외 공동 편자 - 공경희 옮김



간호사들을 위한 특별한 힐링 도서 '간호사는 고마워요'가 출간됐다.

전 세계 5억명이 넘는 독자가 읽은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 중 '간호사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Chicken Soup for the Nurse's Soul)'를 번역한 책이다.

지구촌 간호사 3000명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글로 써서 보내온 원고를 3년 동안 고르고 정리해 책으로 엮었다.

경력이나 나이, 성별, 분야에 상관없이 간호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태도와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지 느끼게 해준다.

생명의 신비와 존엄을 되새긴 순간, 환자 가족의 아픔까지 보듬는 연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소하고도 극적인 사건들, 크고 작은 기

적과 마주한 날... 세상 모든 간호사들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스미토록 멋진 일이라면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방법 △부드럽게 단단하게 △삼날의 오프를 좋아하세요? △오늘도 한 뼘 성장합니다 △어쩌면 매일 찾아오는 기적 등 6개 파트로 구성됐다.

원서에 수록된 70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말 번역판에는 한국 간호사와 해외간호사 4명의 원고를 덧붙여 실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 편자인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과 간호사 낸시 미첼-오터우, 리엔 시먼이 함께 펴냈다. 전문번역가 공경희가 옮겼다.

(원탁박스 / 값 1만5000원) 최수정 기자 sjchoi@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입원질병 1위 초등 저학년 '폐렴' ... 중·고생 '위장염'

초등학교 저학년의 입원 다빈도 질병 1위는 '폐렴'이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위장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지난해 진료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전체 학령기 입원환자 다빈도질병은 '위장염 및 결장염' '폐렴' '인플루엔자' '급성중수염' '급성기관지염' 순이었다. 초등학생 저학년 입원환자는 '폐렴' '위장염 및 결장염' '인플루엔자' 순이었으며, 초등학생 고학년은 '위장염 및 결장염' '폐렴' '인플루엔자' 순이었다. 중학생은 '위장염 및 결장염' '급성중수염' '폐렴' 순으로, 고등학생은 '위장염 및 결장염' '급성중수염' '무릎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순으로 많이 입원했다.

학령기 외래환자 다빈도질병은 '급성기관지염' '치아의 발육 및 맹출장애'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

성 비염' '치아우식' '급성편도염' 순이었다. 외래 다빈도질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특히 치아의 개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아이들의 지난해 진료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학년에 따른 세부분석결과 폐렴 등 호흡기질환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발생했다. 사시는 입원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초등학생 고학년 때까지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특히 남학생 진료인원이 많았다.

기초는 고등학생 연령에서 급격히 증가했고 남학생 진료인원이 많았다. 치핵은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급증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취임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첫 공약이기도 한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초로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치과계와 국민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저희의 멘토가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치과의사협회장 선거는 기존 선거인단에서 직선제로 바뀌어 치러졌다. 온라인(문자)과 우편 투표로 진행됐다.

1차 투표는 3월 28일 진행됐으며, 총 1만3900명의 선거권자 중 9120명(온라인 7714명, 우편 1406명)이 참여해 65.6%의 투표율을 보였다. 2차 결선 투표는 4월 4일 치러졌으며 9566명(온라인 8133명, 우편 1433명)이 참여해 68.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철수 회장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1980년 졸업했다. 서울시 강남구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숙현 기자 shkim@

보건의료산업, 4차 산업혁명 이끈다

IC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열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BIO KOREA 2017'이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생태계 혁신' 주제로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의 융합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해 조망했다.

후주 연방과학원(CSIRO) e-헬스리서치센터의 데이비드 한센 대표는 'Data, Diagnosis, Services : Digital Enabled Healthcare' 주제로 후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사례 및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심장질환자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 화상진료 시범프로젝트, 노인을 위한 스마트홈 등 후주에서 실

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데이비드 한센 대표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igital Healthcare : A New Paradigm' 주제로 강연한 분당서울대병원 백용민 연구부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따른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예측했다.

백용민 연구부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목표는 기술혁신을 토대로 질병예방과 임상적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헬스케어는 예측(Predict), 개인맞춤치료(Personaliza-

tion), 예방(Prevention), 정밀의료(Precision), 환자참여(Participation), 공공성(Public), 국민(Population)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의 효율화, 안전성 확보, 질병의 기전과 및 조기발견 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따라 진료데이터, 유전체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시)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강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강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노성인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강 및 동영상 강의 진행